

보도자료

이 자료는 11월 24일 13:3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경제전망(2022.11월)

(붙임) 참 조

[문의처 : 조사국] 경제성장 : 조사총괄팀 Tel. 02-759-4202, 지출부문 : 동향분석팀 Tel. 02-759-4234
고 용 : 고용분석팀 Tel. 02-759-4232, 물 가 : 물가분석부 Tel. 02-759-4231
대외거래 : 국제무역팀 Tel. 02-759-4421, 국외경제 : 국제경제부 Tel. 02-759-5280
[공보관] 02-759-4016,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불 임)

경 제 전 망

2022. 11.

조 사 국

차 례

< 요약 >

I. 대외 여건 점검	1
1. 세계경제	1
2. 주요 전망 전제치	6
II. 거시경제 전망	7
1. 경제성장	7
2. 고 용	11
3. 물 가	12
4. 경상수지	13

요 약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2.6%, 1.7% 수준을 나타낼 전망

○ 향후 국내경제는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이 이어지겠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펀트업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금리상승, 구매력 저하 등으로 그 속도는 차츰 완만해질 전망
- 설비투자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둔화, SOC예산 감소 등으로 부진할 전망
- 상품수출은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흐름이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 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반등할 전망

□ 취업자수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82만명, 9만명 증가할 전망

○ 취업자수는 금년중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나 내년에는 동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둔화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5.1%, 3.6%를 나타낼 전망

○ 내년에는 경기둔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그간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전망 수준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250억달러, 28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및 내년중 1%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

경제 전망

(%)

	2021	2022			2023 ^{e)}			2024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GDP ¹⁾	4.1	3.0	2.3	2.6	1.3	2.1	1.7	2.3
민간소비	3.7	4.1	5.3	4.7	4.3	1.3	2.7	2.2
설비투자	9.0	-6.4	2.7	-2.0	0.7	-6.7	-3.1	3.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6	4.8	4.7	3.5	3.6	3.6	3.6
건설투자	-1.6	-4.5	-0.4	-2.4	2.4	-2.4	-0.2	0.7
상품수출	10.5	6.0	0.9	3.4	-3.7	4.9	0.7	3.3
상품수입	12.8	5.3	6.4	5.8	2.0	-1.2	0.4	2.9
▪ 취업자수 증감(만명) ¹⁾	37	94	70	82	8	9	9	15
▪ 실업률	3.7	3.2	2.7	3.0	3.6	3.2	3.4	3.3
▪ 고용률	60.5	61.6	62.5	62.1	61.5	62.5	62.0	62.1
▪ 소비자물가 ¹⁾	2.5	4.6	5.6	5.1	4.2	3.1	3.6	2.5
식료품·에너지 제외	1.4	3.1	4.0	3.6	3.4	2.3	2.9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1.8	3.6	4.6	4.1	4.2	3.0	3.6	2.4
▪ 경상수지(억달러)	883	248	2	250	20	260	280	480

주: 1) 전년동기대비

I. 대외 여건 점검

1. 세계 경제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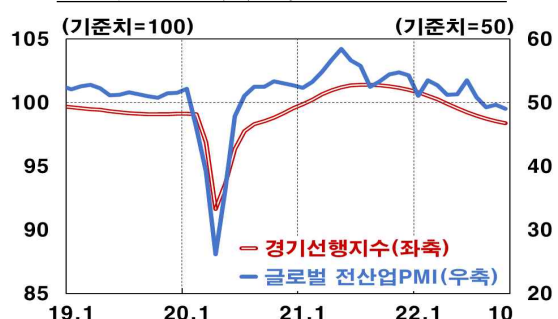
- 3/4분기중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에너지 문제, 중국 부진 등으로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빠르게 둔화
- 향후에도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2021	2022 ^{e)}	2023 ^{e)}
IMF	22.10월	6.0	3.2	2.7
(선진국)		5.2	2.4	1.1
(신흥국)		6.6	3.7	3.7
OECD	22.11월	5.9	3.1	2.2
Bloomberg	22.11월	6.0	2.9	2.1
6개 IB 평균	22.11월	6.2	3.2	2.1

자료: 각 기관

경기선행지수 및 글로벌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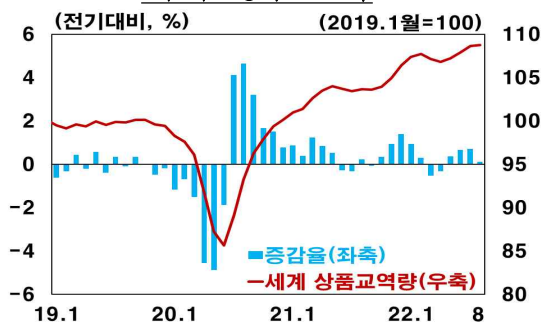


자료: OECD, JP Morgan

□ 세계교역은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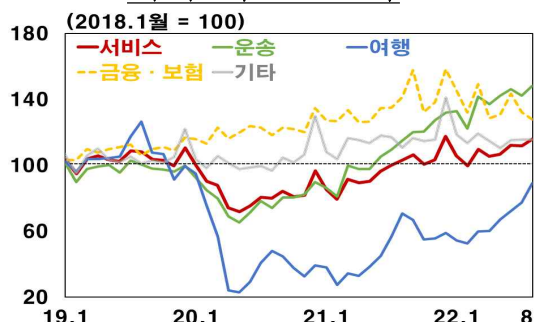
- 향후 상품교역은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서비스교역은 해외여행 등 펜트업 수요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세계 상품교역¹⁾



주: 1) 수출입 물량 평균 기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CPB

세계 서비스교역¹⁾



주: 1) WIO 집계 13개국 수입금액 기준
자료: WTO

□ (미국)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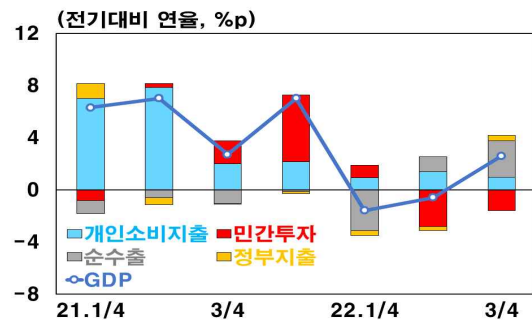
- 3/4분기중 순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반등하였으나,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주택투자가 부진
- 향후 미 연준의 긴축기조가 이어지면서 성장흐름이 둔화 되겠지만 양호한 고용여건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2.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0.7	-0.1	0.1	-0.1
서비스소비	0.0	0.5	0.3	..
소매 판매	-0.4	0.7	0.0	1.3
실업률	3.5	3.7	3.5	3.7
ISM제조업지수 ¹⁾	52.8	52.8	50.9	50.2
ISM서비스업지수 ¹⁾	56.7	56.9	56.7	54.4

주: 1) 기준치=50
 자료: 미 연준, 경제분석국, 인구통계국, 노동통계국, ISM

미국 GDP 기여도



자료: 경제분석국

□ (유로지역) 에너지 수급차질 등으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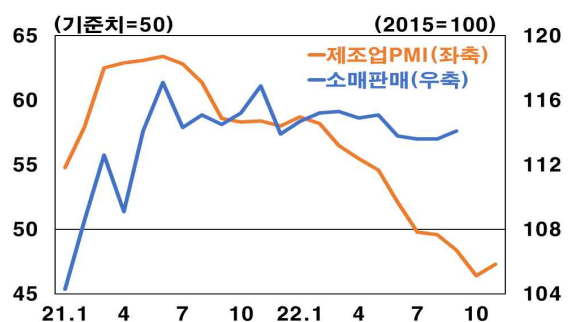
- 3/4분기중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구매력 감소, 가스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상당폭 하락
- 향후 에너지 수급불안에 따른 생계비 부담, 생산차질 등으로 겨울철 경기가 위축될 전망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2.7월	8월	9월	10월 ²⁾
산업생산	-2.3	2.0	0.9	..
소매 판매	-0.2	0.0	0.4	..
실업률	6.7	6.7	6.6	..
제조업PMI ¹⁾	49.8	49.6	48.4	46.4 [47.3]
서비스업PMI ¹⁾	51.2	49.8	48.8	48.6 [48.6]

주: 1) 기준치= 50
 2) []내는 11월
 자료: EU통계청, IHS Markit

유로지역 제조업PMI 및 소매판매



자료: EU통계청, IHS Markit

□ (일본)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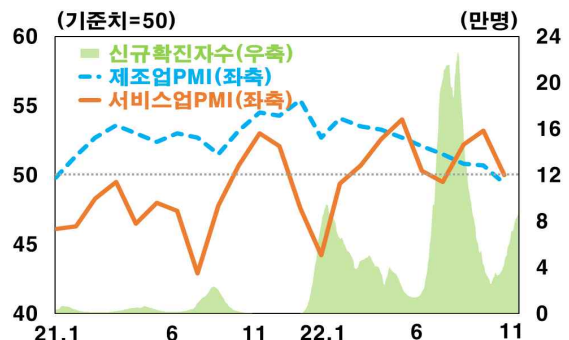
- 3/4분기중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역성장
- 향후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

일본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27월	8월	9월	10월 ³⁾
산업생산	0.8	3.4	-1.7	..
소매 판매	0.7	1.3	1.5	..
수출(통관)	2.3	-0.6	3.4	2.2
민간기계수주액 ¹⁾	5.3	-5.8	-4.6	..
제조업PMI ²⁾	52.1	51.5	50.8	50.7 [49.4]
서비스업PMI ²⁾	50.3	49.5	52.2	53.2 [50.0]

주: 1) 선박, 전력 제외 2) 기준치=50
3) []내는 11월
자료: 경제산업성, 재무성, 내각부,
IHS Markit

일본 신규확진자수¹⁾ 및 PMI



주: 1) 7일 이동평균
자료: Bloomberg, Our World in Data

□ (중국) 제로코로나 지속,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경기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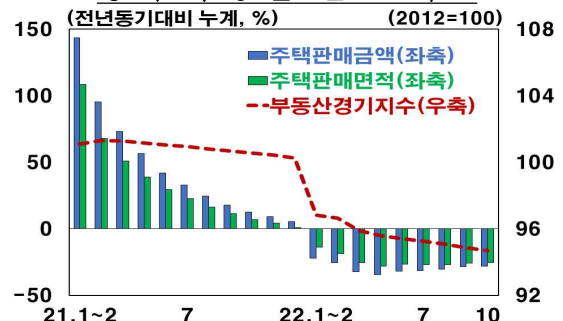
- 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부진한 모습
- 내년에는 양회 이후 제로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내수도 점차 개선될 전망

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3.8	4.2	6.3	5.0
소매 판매	2.7	5.4	2.5	-0.5
고정투자 ¹⁾	5.7	5.8	5.9	5.8
수출	18.0	7.2	5.9	-0.3
제조업PMI ²⁾	49.0	49.4	50.1	49.2
비제조업PMI ²⁾	53.8	52.6	50.6	48.7

주: 1) 누계 기준 2) 기준치=50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중국 부동산 관련 지표



자료: 국가통계국

□ (신중국)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아세안5국은 주요국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겠으나, 관광객 증가 등으로 내수는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인도는 수출 증가세 약화,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양호한 투자흐름이 성장세 둔화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아세안5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¹⁾	9.0	13.6	7.3	..
소매판매 ²⁾	19.5	21.4	..	..
수출(통관)	16.9	24.1	13.3	..
(對중국수출)	3.6	9.9	6.2	..
제조업PMI ³⁾	51.3	51.9	52.8	51.1

주: 1) 인도네시아, 필리핀 제외
2) 필리핀 제외
3) 기준치=50
자료: 각국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인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2.2	-0.7	3.1	..
수출(통관)	2.1	1.6	4.8	-16.6
소비자신뢰지수 ¹⁾	77.3	-	80.6	..
제조업PMI ²⁾	56.4	56.2	55.1	55.3
서비스업PMI ²⁾	55.5	57.2	54.3	55.1

주: 1) 현재 경기 판단, 기준치=100
2) 기준치=50
자료: 인도 통계청, 인도 중앙은행, IHS Markit, CEIC, Bloomberg

- 브라질은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성장흐름이 둔화될 전망
- 러시아는 미국·EU 등의 경제제재 영향과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0.4	2.8	0.4	..
소매판매	-5.3	1.6	3.2	..
수출(통관)	17.1	13.1	17.6	20.8
제조업PMI ¹⁾	54.0	51.9	51.1	50.8
서비스업PMI ¹⁾	55.8	53.9	51.9	54.0

주: 1) 기준치=50
자료: 브라질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0.5	-0.1	-3.1	-2.6
소매판매	-8.7	-8.8	-9.8	..
제조업PMI ¹⁾	50.4	51.7	52.0	50.7
서비스업PMI ¹⁾	54.7	49.9	51.1	43.7

주: 1) 기준치=50
자료: 러시아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 (국제유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90달러 내외에서 등락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하방요인과 OPEC+ 감산 결정 등 상방요인이 혼재
- 주요 기관은 향후 국제유가가 점차 하락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전쟁, 對러시아 제재 등이 유가의 상방요인으로 잠재

국제유가¹⁾ 및 OECD 원유재고²⁾



주: 1) 두바이유 기준
2) 22.11월은 전망치

자료: Bloomberg, EIA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²⁾

	2023 ^{e)}			
	2022 ^{e)} 4/4	상반	하반	연간
EIA(11.8)	93	94	97	95
IEB(11.15)	97	97	98	97
OEI(11.9)	95	-	-	92
IB 평균 ³⁾	97	94	94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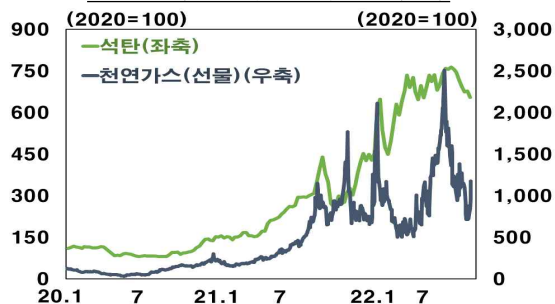
주: 1) 브렌트유 기준, 2) ()내는 전망일자,
3) 11월 발표 IB기준(JPM,Citi 등)

자료: 각 기관

□ (기타원자재) 천연가스는 하락한 반면 비철금속·곡물가격은 대체로 회복

- 주요 기관은 천연가스·곡물가격이 내년에도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비철금속은 하방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천연가스 및 석탄가격¹⁾



주: 1) 석탄은 호주 뉴캐슬항 현물,
천연가스는 TTF 거래소 선물 기준

자료: Bloomberg, Reuters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¹⁾



주: 1) 비철금속은 LME비철금속지수,
곡물은 S&P곡물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2. 주요 전망 전제치

- ☐ (글로벌 통화긴축)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점차 줄어들겠지만 긴축기조는 상당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전제
- ☐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에도 유럽의 에너지 수급차질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 (중국 제로코로나) 제로코로나 정책이 당분간 유지되다가 내년 3월 양회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제

- ☐ 금년 및 내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통화긴축, 유럽 에너지 문제, 중국경제 부진 등을 반영하여 각각 3.1%, 2.2%로 전제

○ 2024년은 2.9% 성장

- ☐ 세계교역 신장률은 각각 4.2%, 2.3%로 전제

○ 2024년은 3.5% 증가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간 평균)는 각각 배럴당 99달러, 93달러로 전제

○ 2024년은 87달러 수준

전망 전제치

		(%)				
	2021	2022 ^{e)}	2023 ^{e)}		2024 ^{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세계경제 성장률 ¹⁾	6.3	3.1	2.1	2.4	2.2	2.9
미 국	5.9	1.8	0.6	0.1	0.3	1.4
유 로	5.3	3.1	-0.3	-0.1	-0.2	1.5
중 국	8.1	3.4	5.1	3.9	4.5	4.5
일 본	1.6	1.5	1.4	1.2	1.3	1.2
▪ 세계교역 신장률 ¹⁾	10.1	4.2	2.1	2.5	2.3	3.5
▪ 국제유가(달러/배럴) ²⁾	69	99	94	92	93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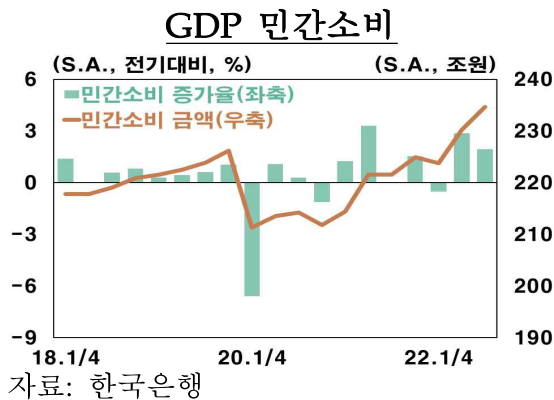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두바이유 기준, 기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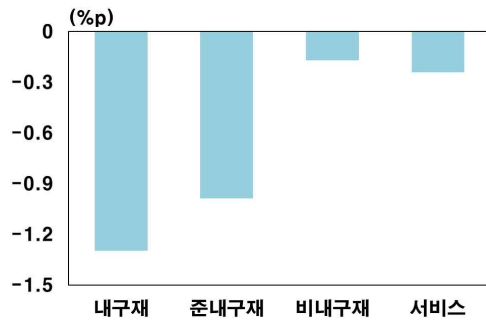
II. 거시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민간소비) 팬트업 효과가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실질구매력 저하, 금리상승 등으로 회복 속도는 점차 둔화될 전망
 - 부문별로는 국외소비가 확대되겠으나, 서비스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화소비는 부진할 전망
 -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등은 하방리스크로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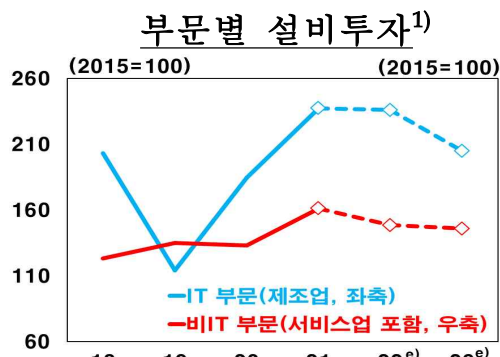


금리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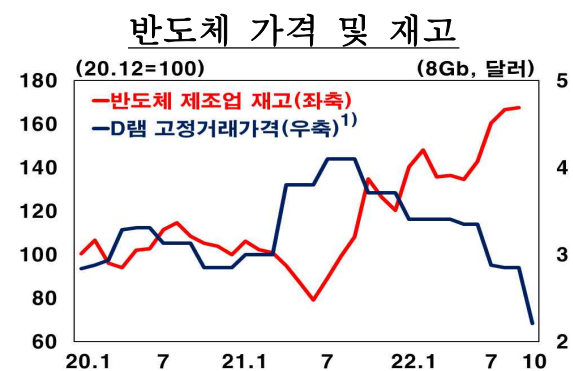


주: 1) 금리 1%p 상승충격에 대한 형태별 소비의 연간 증가율
자료: 박경훈 외(2022.8)

- (설비투자) 글로벌 수요둔화와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위축될 전망
 - 제조업은 IT부문과 비IT부문 모두 해외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본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부진할 전망
 -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항공운수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주: 1) IT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준
비IT는 IT부문 제외
자료: 조사국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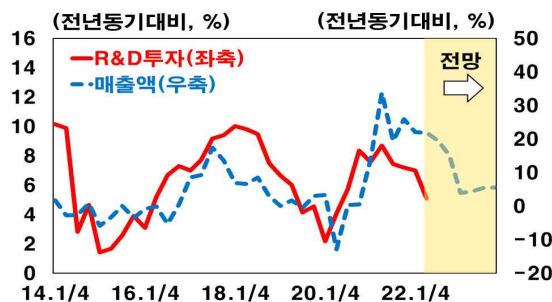


주: 1) 기업간 대규모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
자료: 통계청, DRAMeXchange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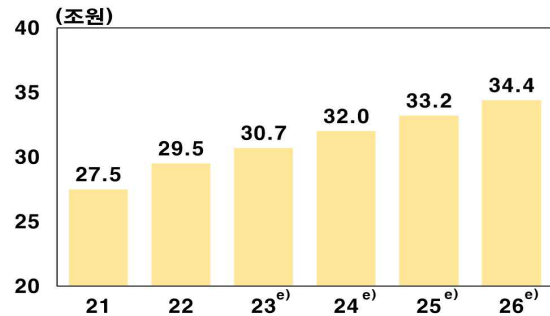
- R&D투자는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민간 R&D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가 이어질 전망

R&D투자 및 제조업 매출액¹⁾



주: 1) 22.3/4분기부터는 컨센서스 수치
자료: 한국은행, FnGuide

정부 R&D예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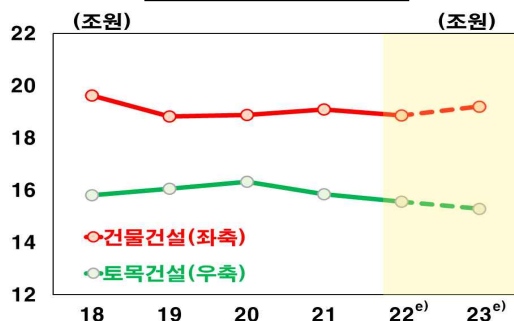


주: 1) 22년까지는 추경, 23년부터는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건설투자) 주택수요 둔화와 정부SOC예산 감소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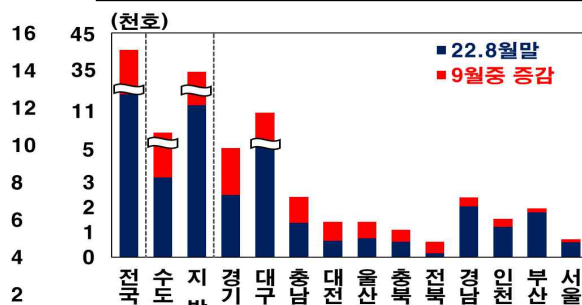
- 주거용 건물건설은 그간의 수주 호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위축으로 공사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
- 토목건설 투자는 정부의 SOC예산이 줄면서 감소할 전망

부문별 건설투자¹⁾



주: 1) GDP 실질금액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추정

22.9월중 지역별 미분양주택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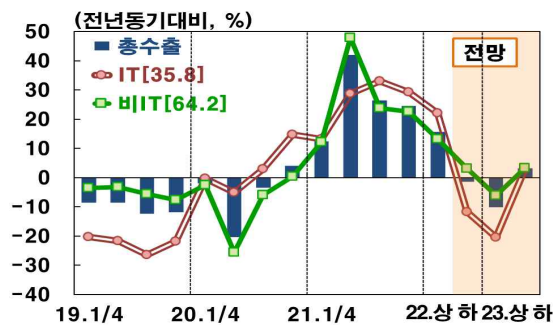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대외거래) 상품수출은 중국과 IT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입 수요가 약화되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

- 통관수출의 경우 품목별로 보면 IT, 비IT 모두 수요둔화와 단가하락으로 내년중 수출액(통관기준)이 감소 전환할 전망

IT¹⁾ 및 비IT 수출²⁾



주: 1) 반도체·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패널·컴퓨터
2) [] 내는 2021년 기준 수출비중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

(전년대비, %)

기관	2021	2022 ^{e)}	2023 ^{e)}
Gartner (22.9월)	26.3	4.0	-3.6
Morgan Stanley (22.10월)	26.2	6.4	-2.6
IC Insights (22.11월)	24.6	3.0	-6.0

자료: 각 기관

⇒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2.6%, 1.7% 수준을 나타낼 전망

- 향후 국내경제는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이 이어지겠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e)}			2024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4.1	3.0	2.3	2.6	1.3	2.1	1.7	2.3
민간소비	3.7	4.1	5.3	4.7	4.3	1.3	2.7	2.2
설비투자	9.0	-6.4	2.7	-2.0	0.7	-6.7	-3.1	3.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6	4.8	4.7	3.5	3.6	3.6	3.6
건설투자	-1.6	-4.5	-0.4	-2.4	2.4	-2.4	-0.2	0.7
상품수출	10.5	6.0	0.9	3.4	-3.7	4.9	0.7	3.3
상품수입	12.8	5.3	6.4	5.8	2.0	-1.2	0.4	2.9

□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는 향후 1%p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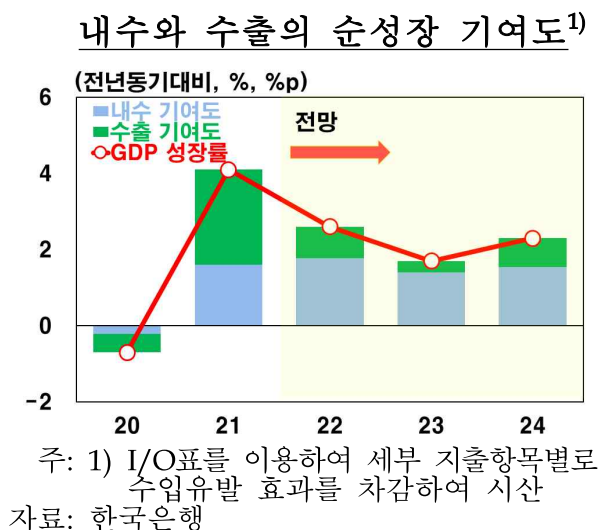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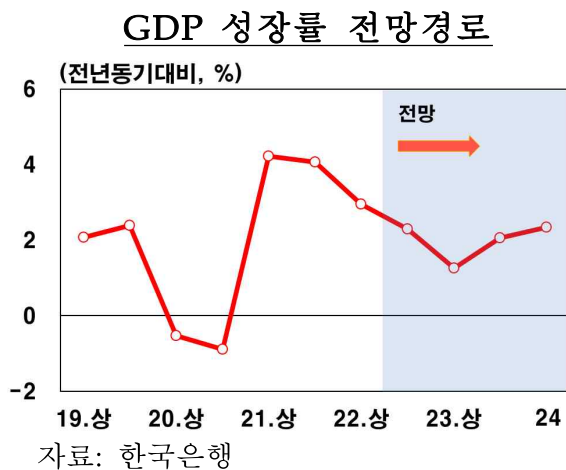
수출 기여도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폭 축소될 전망

순성장 기여도(%p)	2020년	2021년	2022년 ^{e)}	2023년 ^{e)}	2024년 ^{e)}
▶ 내 수	-0.2	1.6	1.8	1.4	1.5
▶ 수 출	-0.5	2.5	0.8	0.3	0.8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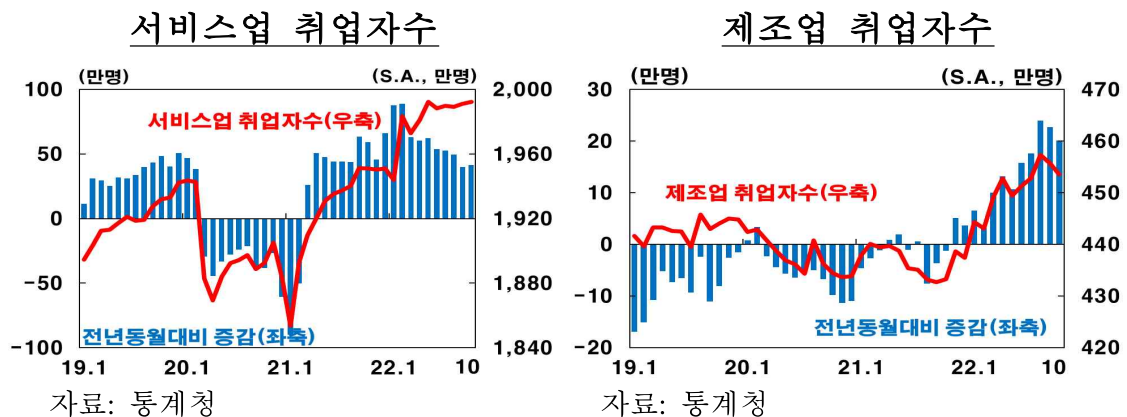
○ (상방리스크)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중국 제로코로나 조기 완화, 소비회복 모멘텀 지속 등

○ (하방리스크)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높은 에너지가격 지속,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2. 고용

- 취업자수는 금년중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 하였으나 내년에는 동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둔화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대면서비스업의 회복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비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
-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



⇒ 취업자수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82만명, 9만명 증가할 전망

고용 전망

	2021	2022			2023 ^{e)}			2024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취업자수 증감 ¹⁾	37	94	70	82	8	9	9	15
실업률	3.7	3.2	2.7	3.0	3.6	3.2	3.4	3.3
(S.A.)	-	2.9	3.0	-	3.3	3.4	-	-
고용률 ²⁾	60.5	61.6	62.5	62.1	61.5	62.5	62.0	62.1
	[66.5]	[68.1]	[68.9]	[68.5]	[68.3]	[69.1]	[68.7]	[68.9]

주: 1) 전년동기대비

2) 15세 이상, []내는 15~64세(OECD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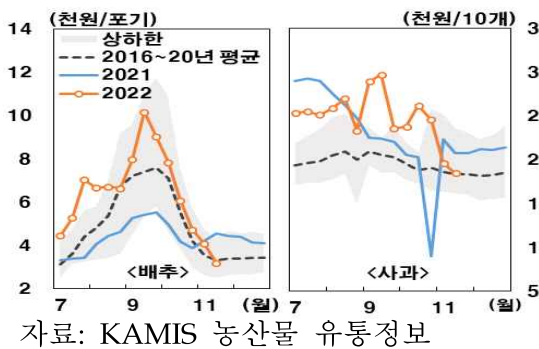
3. 물 가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지난 8월 전망치(5.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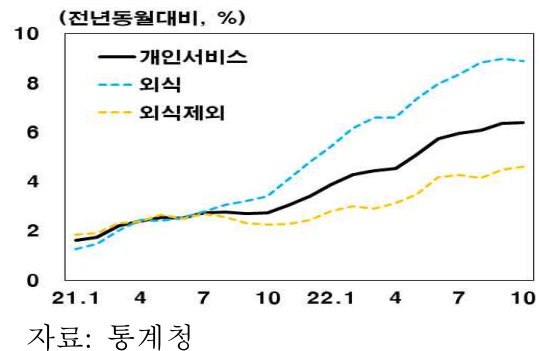
▪ 최근 물가상승률 실적치와 농산물가격 하락세를 반영

○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에너지 제외)은 개인서비스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전망 수준(3.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

주요 농산물가격



개인서비스물가



□ 내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3.6%, 2.9%로 지난 8월 전망 수준(3.7%, 3.1%)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

○ 그간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경기 둔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주로 기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5.1%, 3.6%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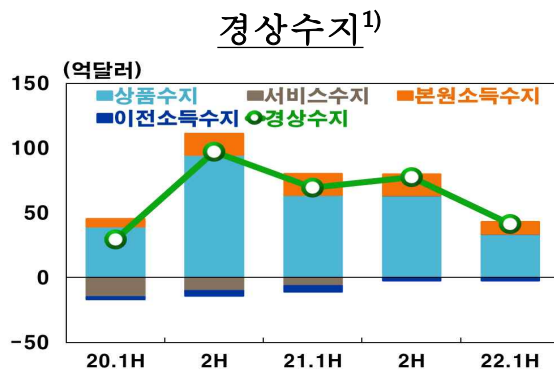
○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에너지 제외)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3.6%, 2.9%로 전망

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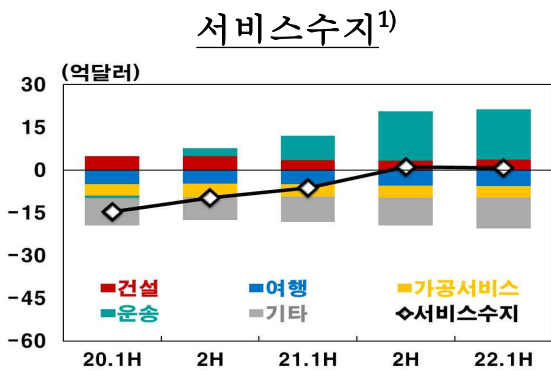
	2021	2022			2023 ^{e)}			2024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2.5	4.6	5.6	5.1	4.2	3.1	3.6	2.5
식료품·에너지 제외	1.4	3.1	4.0	3.6	3.4	2.3	2.9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1.8	3.6	4.6	4.1	4.2	3.0	3.6	2.4

4. 경상수지

- 금년중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나 내년 이후 서비스수지 악화에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 상품수지는 금년중 원자재수입 급증 등으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나, 내년에는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 완화, 수입 감소세로 흑자폭이 다시 확대될 전망
- 서비스수지는 그간의 팬데믹 호조요인(여행·운송)이 약화되면서 점차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본원소득수지는 금년중 해외증권투자 축소 등으로 흑자폭이 줄어들겠으며, 내년에는 배당수입은 감소하나 이자수입이 늘면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250억달러, 280억달러로 전망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및 내년중 1%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

경상수지 전망

	2021	2022			2023 ^{e)}			2024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경상수지	883	248	2	250	20	260	280	480
상품수지	762	200	-70	130	70	293	363	578
서비스수지	-31	5	-35	-30	-91	-109	-200	-199
본원소득수지	193	57	120	178	67	110	177	167